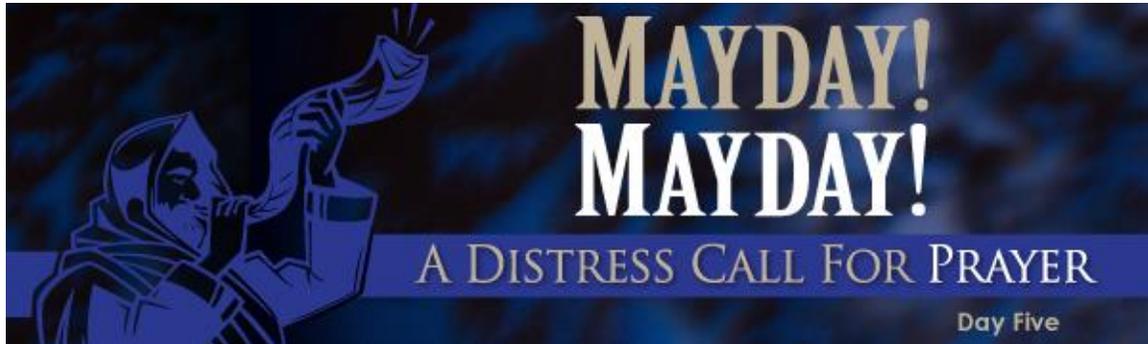


# MAYDAY! MAYDAY!

긴급 기도 요청

Day 5

*\*Mayday 란?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는 조난신호를 뜻하는 말입니다.(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sup>1</sup>*

## 여호와 로이(JEHOVAH ROHI): 나의 목자되신 주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sup>2</sup>*

온유한 목자이신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당신이 필요한 때, 우리에게 “지금 당장” 와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어둡고 험악한 세상 풍파 속에서 길을 안내해 주시는 빛이시며, 우리의 영적 위치를 알게 해주는 영적 GPS 같은 분이십니다.<sup>3</sup>

---

<sup>1</sup> 요 17:11

<sup>2</sup> 시 23:1

<sup>3</sup> 미국 텍사스 달라스의 오크 클리프 바이블 헬로우십 교회의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영적 GPS 가 되시는 우리의 목자’ 비유를 인용했음

당신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언젠가 우리를 본향의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실 주님, 당신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당신은 자기 백성들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모든 필요를  
온전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어린 영혼들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을 찾으시며

길 잃은 자들을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자들을 인도하시며

부당한 일을 당한 자들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고

학대 받은 자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며.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탕자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더럽혀진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아름답게 꾸며 주십니다.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며,

깨어진 곳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공허한 곳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벗은 사람을 입히시며,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죄인을 용서하시며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sup>4</sup>

언젠가 우리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우리  
믿음의 눈을 당신께 고정합니다!

\_\_\_\_\_ (한)분이신 당신을 경배합니다.

어제 한 시간 동안 우리 각 사람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결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sup>5</sup> 주님  
감사합니다!

\_\_\_\_\_ <sup>4</sup> 앤 그레이엄 로츠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두란노 역간>에서 인용

<sup>5</sup> 요일 1:9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공동체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 목장의 양떼인 우리가<sup>6</sup> 끊임 없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가며, 제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sup>7</sup> 교단 분열과 당파, 경쟁으로 인해 복음의 나팔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들, 배신과 말다툼, 오만과 편견, 재물과 탐심,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마땅히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하는 당신의 아름다움이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느라 패배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까닭에 스스로를 기만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다가 실망에 빠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느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왜곡되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법원 건물 벽에 십계명을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중 다섯 계명을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

<sup>6</sup> 겔 34:31

<sup>7</sup> 사 53:6

학교에서 더 이상 공식적인 기도를 못하게 되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기도모임을 제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모임을 한다 해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부흥을 부르짖지만,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당신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감히 성경을 들먹이며 논쟁을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주장하지만, 무오하고 영감 있는 말씀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실수 하시고, 온전한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며, 그저 옳은 말만 하시는 분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교단에서 나온 자료들로 주님의 말씀을 대체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교리'로, '영적인 삶'을 '교회 활동'으로, '기도'를 '프로그램들'로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_\_\_\_\_을 \_\_\_\_\_(으)로 대체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교인의 수적 성장을 위해 죄와 심판을 합리화하고 부인하며 덮어 주었습니다. 청중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서 전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_\_\_\_\_을(를) 합리화 해 왔습시다.

주님, 회개합시다.

우리는 죄를 조금이라도 덜하게 보이려고 죄의 명칭들을 바꾸어 부릅시다. '거짓말'을 '과장'이라고 부릅시다. '간음'을 '안전한 성관계'라고 부르며, '살인'을 '선택할 권리'라고 부릅시다. '만취상태'를 '병'이라 부릅시다. '시기'를 '야망'이라 부르며, '교만'은 '자존심'으로, '겸손'은 '단점'이라고 부릅시다.

우리는 \_\_\_\_\_을 \_\_\_\_\_라고 부릅시다.

주님, 회개합시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최고 경영자(CEO)로 세웠습시다. 영적 지도자들을 유명 인사로 만들었습시다. 사역을 사업으로 바꾸어 놓았고, 10% 신용 수수료를 가져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시다.

우리는 \_\_\_\_\_을(를) 해 왔습시다.

주님, 회개합시다.

깊은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목숨을 주실만큼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당신을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임을 모릅니다. 우리가 패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절망하며 운명을 개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당신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정책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무서워합니다. 우리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부끄러움으로 \_\_\_\_\_(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옵니다.<sup>8</sup> 죄는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모든 반역을 고치시고 우리를 기쁘게 사랑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sup>9</sup>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sup>10</sup>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

<sup>8</sup> 벰전 2:25

<sup>9</sup> 호 14:1-2, 4

<sup>10</sup> 요 10:11